



파죽지세… “2위 사정권 들었다”

초보감독 양승호-류중일의 희망가

양승호 “6연전 결과에 2위 도약 판가름”
선발·불펜 안정…LG의 추격 경계해야

류중일 “원정 8연전 5승 3패면 가능성”
타선 부활·선수들 정신무장이 큰 과제

삼성 류중일 감독과 롯데 양승호 감독은 올시즌 데뷔한 초보 사령탑들이다. 그러나 8월 들어 삼성은 선두 독주체세를 갖추기 시작했고, 롯데는 전반기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4위로 도약하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상위권 판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시즌 전 발표한 정규편성의 최종 6연전 첫 판이 벌어진 23일 양 감독과 류 감독은 약속이나 한 듯 속내를 털어놓았다. 류 감독은 펜트레이스 1위 조

기가지와 의지를, 양 감독은 내심 2위까지 넘보고 있는 속내를 드러냈다.

●류중일 “원정 8연전 잘 하면 매직넘버 보인다”

삼성은 대구에서 펼쳐지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다음달 4일까지 홈경기 없이 원정을 전전한다. 23일 청주 한화전에서 31일 시작 롯데전까지 원정 8연전이다. 대신 9월 1~5일 경기일정은 없다. 류 감독은 23일 경기 전 “이번 원정 8연전 결과에 따라 도망갈 수도, 2위권과 좁혀질 수도 있다. 도망가면 매직넘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5승3패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연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1위도 일찍 결정날 텐데”라며 진담 같은 농담도 덧붙였다. 1위 경쟁의 중앙감에서 조기 탈출하고픈 의지이자, 한국시리즈 직행을 일찍 확정짓고 여유롭게 우승구상에 전념하고픈 희망의 표현이었다.

희망사항을 실현하려면 선결과제도 풀어야 한다. 류 감독은 타선 부활과 정신무장, 두 가지를 강조했다. 류 감독은 “최근 안타생산도, 득점력도 모두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오늘 1번 배영섭, 2번 박한이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의 타선을 냈지만 결과를 보고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좀 여유가 있다고 선수들이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매 게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양승호 “2위, 사정권에 들어왔다”

한때 4위와 6.5게임차까지 벌어져 4강 경쟁도 버거운 상황에 몰렸던 롯데는 7월 중순 이후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이제 2위도 노려볼 수 있는 입장이 됐다. 23일 시작 KIA전을 앞두고 양승호 감독도 “사정권에 들어왔다”며 “KIA, 넥센과 맞붙는 이번 주 6연전에서 3승3패를 목표로 하겠지만 두

번 모두 워닝시리즈가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각 롯데, 두산과 주중에 맞붙는 KIA, SK가 주말에 맞대결을 펼치는 일정을 떠올리며 이번 주 결과가 사정권에 들어온 2위 도약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도 내비쳤다. 부상 공백이 없는 베스트 라인업에 탄탄하게 돌아가는 선발진과 불펜진이 양 감독의 ‘믿는 구석’.

양 감독은 2위 야심을 숨기지 않으면서 긴장을 풀지도 않았다. “우리가 6.5게임을 뒤집었는데, 반대로 뒤집히지 말란 법도 없다”며 5위 LG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인(홍)성흔이가 선수들에게 매 게임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사직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심기일전… “우승 매직넘버 쓴다”



23일 청주 삼성전에서 결승 2루타를 때려낸 한화 신경현(왼쪽)이 이어진 2사 1·3루서 한상훈의 적시타로 홈을 밟은 후 덕아웃에서 정민철 투수코치(오른쪽)의 환영을 받고 있다.

편집 | 김남은 기자 kne81@donga.com 트위터 @ed_silver

■김종 교수 특별기고

야구트레이닝센터 세우자

한국 프로야구가 어느덧 30년을 맞이했다. 한국 프로야구는 지난해 통산관중 1억 명을 돌파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로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그 인기를 실감이라도 하듯 최근 창원시가 프로야구 제 9구단 창단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수원시, 전주 시에서도 프로야구단 창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듯 관중 증가, 구단증설 등을 통한 야구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프로야구는 축구에 비해 펀더멘털이 매우 약하다.

국내 축구의 경우, 국내 최대 등록선수수와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파주에는 축구전용 훈련시설(NFC)까지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단지 대표팀의 훈련장이 아니라 일반 선수, 코치, 심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유소년부터 프로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코칭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심판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프로야구는 심판훈련 및 양성, 코칭아카데미, 기록원 연수 등을 제각기 다른 장소에서 임대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어 제대로 통합 관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 익산시와 고양시에 대표팀을 위한 야구장이 건설되었으나 이는 야구장이지만 야구 인프라가 구축된 종합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선수는 물론 코치, 심판, 기록원의 교육 및 트레이닝까지 이뤄지는 장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될 수 있는 야구트레이닝센터(BTC)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

프로야구의 토대를 펀더멘털은 프로야구 30년의 역사를 새길 수 있는 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이다. 일본의 경우 프로야구 출범 24년 만인 1959년에 야구체육박물관을 개관하였다. 현재 도쿄도에 있는 야구박물관은 일본 프로야구 75년의 역사이며 자긍심이다. 성인이 된 국내 프로야구의 역사와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립 후보지 선정 및 예산안 확보, 박물관 콘텐츠 선정, 명예의 전당 선정 기준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변확대는 소프트웨어적인 펀더멘털이다. 퓨처스리그 확장 및 개편, 유소년야구, 여자야구 활성화를 위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생활 일부분이 된 한국 야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야구인이 함께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KBO는 펀더멘털 강화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구본능 총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임창용 1군 복귀…등판은 무산

야쿠르트 임창용(36)이 부상을 털고 1군에 복귀했지만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23일 도쿄 진구구장에서 열린 주니치와의 홈경기를 통해 복귀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됐다. 22일 투수조 훈련에 참석한 그가 “몸 상태가 좋다. 2군에 2번 등판하면서 실전감각도 끌어올렸다. 경기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야쿠르트가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9회초를 맞으며 임창용이 등판할 수 있는 법상이 차려졌다. 그러나 마무리로 등판한 투수는 그가 아닌 용병 바넷이었다.

한편 오릭스 이승엽은 같은 날 니카타구장에서 열린 세이부와의 경기에서 결장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올시즌 첫경기 펼쳐진 청주구장 매진

올시즌 첫 프로야구 경기(삼성-한화)가 펼쳐진 23일 청주구장은 오후 4시37분 일찌감치 7500석 매진을 기록했다. 한화의 올시즌 7번째 홈경기 매진(대전구장 6회). 야구의 날의 맞아 이날 청주를 비롯한 전국 4개 구장에선 전 관중에게 입장료 50%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알드리지 왼쪽 어깨통증으로 1군 제외

넥센의 외국인타자 코리 알드리지가 23일 잠실 LG전에 앞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왼쪽 어깨통증에 시달리는 알드리지는 당분간 목동구장에서 재활에 매진할 예정이다.

■숨은기록찾기

●삼성 시즌 3번째 3연패 ●삼성 배영섭 5연타석 삼진=21일 대구 LG전 8회 마지막 타석+23일 한화전 4연타석 삼진. 역대 최다=8연타석(태평양 구유·LG 박우권) ●한화 김혁민 최근 6연패 및 삼성전 3연패 끝 ●롯데 송승준, 개인 최다 7연속경기 월리타 스타트 끝 ●롯데 팀 통산 4만6000루타 달성(4번째) ●두산 김선우, 3년 연속 10승(역대 41번째, 두산 6번째) ●두산, 시즌 3번째 무사구 경기 ●롯데 선발 전원안타=팀 6번째, 시즌 19번째

■엔트리노트

●등록=이재영(SK), 김다원(KIA), 이택근 이병규(24번·이상 LG), 이희곤(한화), 오재일(넥센) ●탈소=박노민(한화)

엔서니기자의 추신수 스토리

클리블랜드 추신수(29)가 23일(한국시간) 열린 시애틀전 선발라인업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는 부상 때문이 아닌 ‘행복한 순간’을 위한 휴식이었다.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추신수의 아내 하원미 씨는 이날 첫 딸을 얻었다. 클리블랜드는 딸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만 추신수는 기자에게 한 달 전 아이의 이름을 ‘아비가일’로 지을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신수가 없는 클리블랜드는 시애틀를 상대로 단 2점만을 뽑아내며 2·3으로 졌다. 팀 4연패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선두 디트로이트와 5.5게임차로 벌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추신수는 딸이 태어나는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가족의 가치에

셋째 득녀한 추신수의 ‘행복한 결장’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고마움을 드러내곤 했다. 그는 “내가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든, 5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든 아내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는다”며 “내가 야구를 하지 못할 때 어린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그 어려움을 더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추신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지금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클리블랜드는 24일 더블헤더를 치러야 하고 그는 더블헤더 중 1경기 또는 두 경기 모두 뛰어야 할지 모른다. 클리블랜드는 그가 필요하다. 그는 왼손 엄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8경기에 나가 타율 0.343(35타수 12안타) 1홈런, 3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에 도움이 됐다. 게다가 클리블랜드는 더 이상 질 여유가 없

다. 디트로이트가 승수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중부리그 단독선두로 치고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망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클리블랜드 클린업트리오 중 한 명인 트레비스 해프너가 왼쪽 발 염좌로 DL(부상자명단·disabled list)에 올랐고, 2루수 베이스 킵니스 또한 지난주 전력에서 이탈했다. 그래디 사이즈모어는 탈장수술을 받았다. 이제 남은 추신수와 유격수 아드루발 카브레라만이 매일 밤, 경기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팀의 공격을 책임지게 됐다. 추신수가 빠진 월요일 저녁, 클리블랜드는 뼈아팠다. 그러나 추신수에게는 딸의 탄생을 지켜봐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 순간은 야구보다 더 중요하다. MLB.com 기자



클리블랜드 추신수가 미국의 전국지 USA투데이에 1면 사진과 스포츠섹션 톱을 장식했다. 이 신문은 추신수가 한국의 희망을 안고 뛰고 있으며 올시즌 시즌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애플랜드(미 조지아주) | 연합뉴스